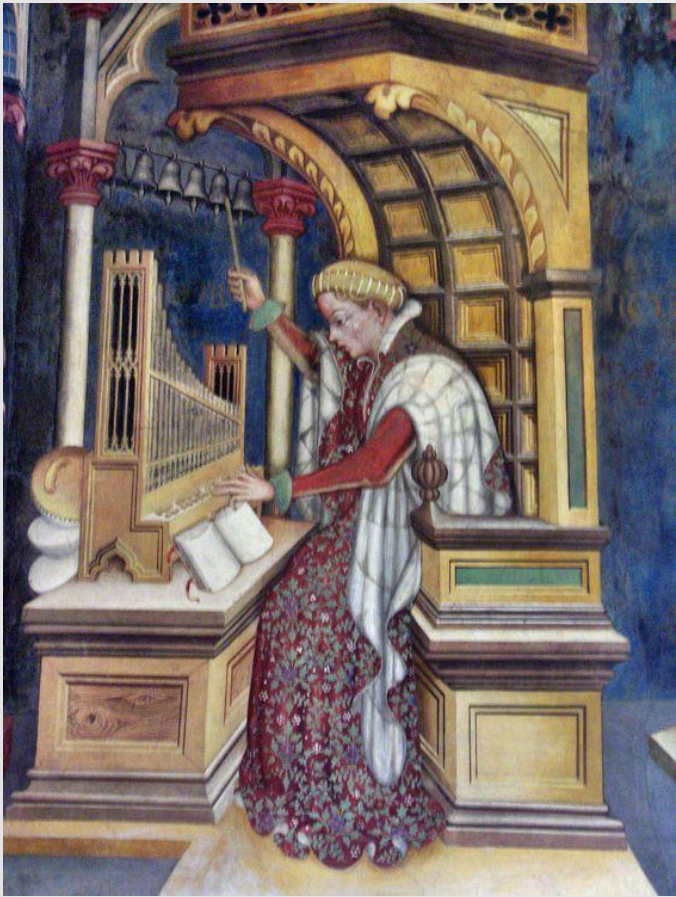


■ 이탈리아 트레첸토 음악

- 트레첸토 ← mille trecento, 1300년대 , 14세기 의미
- 단성음악으로부터 트레첸토 다성음악으로의 진화과정은 알려지지 않음
- 프랑스는 왕권 신장으로 인해 중앙 집권화 경향이 점점 증대됨
- 이탈리아는 독립된 주권을 가진 다수의 도시국가와 공화국으로
구성됨
- 14세기는 혼란과 격변의 시기:
 - 흑사병 강타, 연이은 흉년, 도시국가들 간의 잦은 충돌
 - 일부 도시국가는 상업, 무역, 선박제조, 은행업으로 부를 쌓음
 - 볼로냐, 파두아, 모데나, 밀라노 등이 대표적인 도시들
- 트레첸토 음악의 중심지
- 이후 중심지는 피렌체로 옮겨짐
- 피렌체: “이탈리아의 아테네”

14세기~16세기 학문적, 문화적 중심지





M → 후작령

D → 공작령

Pr → 공국

Rep → 공화국

● 트레첸토 대표 작곡가들:

- 피렌체, 볼로냐, 파두아, 밀라노, 베로나 등 출신
- 이들 도시들에서 음악은 모든 계층의 시민생활과 밀접하게 결부됨
- 고문서 보관소에 기록된 당시의 경리장부
 - 연주자들의 급료, 악기, 연주자의 제복에 관한 지출 등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음
 - 음악이 당국의 적극적인 후원을 받고 있었음을 알 수 있음



14세기의 이탈리아
도시 모습

- 트레첸토 시기에는 회화나 문학분야에서도

위대한 대가들 배출됨

- 보카치오: <데카메론>

프라토: <알베르티 가의 낙원>

단테: <신곡>,

시인 페트라르카

화가 지오토 디 본도네

지오토
디 본도네의
<최후의 심판>



보카치오

단테



페트라르카

라우라



● 다성 세속 노래

- 동시대의 프랑스 음악은 리듬에 보다 많은 관심을 둠
- 트레첸토 음악은 선율적 아름다움과 풍부한 표현을 더 중시함
- 종교 음악보다는 다성 세속노래에 더 많은 관심을 둠
- 마드리갈, 카치아, 발라타, 세 종류의 형식들이 이탈리아 트레첸토를 지배함



지오토 디 본도네의 그림들



● 마드리갈

- 최초의 이탈리아 다성음악 형식
- 14세기 중엽에 크게 유행했던 형식
- 가사는 3행으로 된 2 개 또는 3개의 절
 - + 2행으로 된 리토르넬로로 구성

각 행은 대체로 7 또는 11음절, 리토르넬로는 11음절로 구성

리토르넬로:

- 두 개의 절 또는 세 개의 절이 모두 노래된 뒤에 나오는 종결구 역할

후렴구가 아님

- 주로 2 성부로 구성
- 가사는 목가적, 전원적, 풍자적, 또는 사랑에 관한 내용
 - 이후에는 도덕적, 자전적 내용도 포함
- 양 성부 모두 같은 가사로 불림



- 음악은 두 부분으로 되어 있음:
 - 각 절에 반복되는 음악과 리토르넬로를 위한 음악
- 리토르넬로 음악은 종종 다른 박자로 되어 첫 부분과 대조됨
 - a a b (절이 2개 일 경우) 또는 a a a b (절이 3개 일 경우)
- 전체적으로 단음적 패시지와 다음적 패시지가 교대로 나옴
- 종종 두 성부 간에 짧은 모방적 패시지가 나오기도 함



- 다음적 패시지는 주로 첫 음절과 마지막 강세 음절

마지막 강세음절: 통상적으로 끝에서 두 번째 또는 세 번째 음절에 나타남

- 병행 5도나 옥타브 같은 병행 협화음이 많이 나타남

- 상성부는 하성부보다 비교적 더 화려함

- 하성부는 상성부에 비해 느린 음가로 움직임

- 하성부에 자주 나타나는 반복 음은 가사의
음절 수에 맞추기 위한 것으로 보임

- 많은 경우에 종지는 3도에서 동음으로 움직임



- 14세기 중반의 이탈리아 작곡가들의 대부분은 피렌체, 볼로냐, 밀라노, 베로나 같은 북부 이탈리아의 도시나 도시 국가 출신

● 야코포 다 볼로냐

- 밀라노와 베로나 궁정에서 일함
- 트레첸토 음악가들 중 첫 세대에 속함
- 34곡이 현존
 - 24개의 2성부 마드리갈, 5개의 3성부 마드리갈
 - 카치아 3 곡, 발라타 1곡, 모테트 1곡
- 그의 마드리갈은 모든 성부에 가사가 붙여져 있음
- 성부 교차는 일어나지 않음



야코포 다 볼로냐

아코포 다 볼로냐의 마드리갈 '불사조 처럼'

- 두 개의 3행 절 + 2행 리토르넬로
- 두 성부가 같은 가사 가짐
- 두 성부가 같은 가사를 노래함
- 각 시행의 시작 부분을 제외하고는 가사의 대부분이 양 성부에서 거의 동시에 노래됨
- 7-9, 24-25 마디에 짧은 모방적 패시지
- 9와 16마디에 호케투스
- 긴 다음적 패시지가 각 행의 마지막 강세 음절에 나옴
- 리토르넬로 색션은 앞부분의 박자와 다른 박자
- 첫 색션과 리토르넬로 색션 모두 종지는 3음에서 동음으로 진행
- 첫 색션의 종지는 동음 앞에 나오는 장 3도를 단 3도로 만들기 위해 무지카 픽타를 적용
- 3, 15, 20, 26에 '아름다움을 이유로' 무지카 픽타 적용

RL

Fe - ni - ce fu - e vis - si pu - ra e

Fe - ni - ce fu e vis - si pu - ra e

멜리σμα 2행

mor - - - bi - da. Et or son transmu - ta - ta in u - na

mor - - - bi - da, Et or son tras - mu - ta - ta in u - na tor -

호케투스 멜리σμα 3행

tor - - - to - ra Che vo - lo con A -

to - ra Che vo - lo con A -

멜리σμα 호케투스

mor per le bel - lor - - - - -

mor per le bel - lor - - - - -

리토르넬로 1행

to - ra. R. Tal vis - si e tal me vi - vo e posso

to - ra. R. Tal vis - si e tal me vi - vo e posso

2행

son - ve - re Ch'adon na non è più che o - ne - sta vi - ve - re.

son - ve - re Ch'adon na non è più che o - ne - sta vi - ve - re.

● 카치아

- 마드리갈이나 발라타보다 현존하는 음악은 적음
- 당시의 궁정사람들에게 상당한 인기를 누렸던 음악 형식
- 1340년경부터 1360년까지 융성
- '추적하다' 또는 '사냥하다'라는 의미의
이탈리아어 cacciare로부터 유래된 용어

- 전형적인 카치아:

- 3성부, 두 상성부만 가사를 가지며 성악적 카논을 형성
하성부인 테노르는 가사가 없음
→ 독자적인 선율을 가짐 (카논에 불참)
긴 시가로 움직임
→ 기악적 반주 성부를 가지는 2성부 카논
- 가사는 고정된 시적 형식이 없이 길이가 긴 절 하나로 이루어짐



중세 시대의 사냥 장면

- 15개의 카치아들이 묘사적 가사를 가짐

- 7개의 카치아; 사냥 장면

8개의 카치아: 낚시, 뱃놀이, 화재 또는 거리나 장터 장면 등 야외 장면을 사실적으로 묘사

- 마드리갈처럼 두 섹션의 음악으로 이루어짐

- 두 번째 섹션은 리토르넬로: 통상적으로 앞 부분과 다른 박자

- 앞 섹션의 두 상성부는 카논 :

두 번째 섹션보다 길이가 길다.

선행 주제가 시작 한 후 8마디 또는 그 이상 있다가 후속 주제가 따라 나옴

카논에 참여하지 않는 테노르는 선행 주제 성부와 함께 시작

- 리토르넬로:

- 앞 부분보다 길이가 짧음

- 카논인 경우도 있고,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음

카논 인 경우에도 선행 주제와 후속 주제 간의 거리는 짧음

카논이 아닌 경우에는 세 성부가 함께 시작



● 게라르델로 다 피렌체

- 트레첸토 첫 세대 음악가
- 전례음악, 많은 세속 노래 작곡 (단성 발라타, 2성부 마드리갈, 3성부 카치아 등)
- <새벽이 오자마자>는 그의 유일한 카치아

<스쿠아르치알루피 코덱스>에

수록된 <새벽이 오자마자> →



게라르델로 다 피렌체의 <Tosto che l'alba> (새벽이 오자마자)

멋진 날의 아침이 환하게 밝아오자마자
사냥꾼들은 기상하네

“어서, 어서 일어나, 늦겠다.”
사냥개들을 부르네
“야, 야 비올라, 그리고 너 프리메라!”
산 위 높은 곳으로 멋진 개들을 데리고 올라가
사냥개들을 조용히 모아놓고
모두들 땅 위에 차례로 엎드려 기다리네.

“사냥개 한 마리가 무슨 냄새를 맡은 것 같다. 준비하십시오!”
“자 모두들 수풀을 살살이 뒤흔들라, 칼리나가 짖는다!”
“어이! 어이! 새끼 암사슴이 네 쪽으로 간다.
카르본이 그 놈을 잡았어. 입에 물고 있다!”

<리토르넬로>

산 위에 있는 한 친구가 소리 지르네,
“자! 또 한 마리, 다른 놈을 잡아야지!”
그리고 사냥 나팔을 부네.



게라르델로 다 피렌체

<새벽이 오자마자> 카치아

- 각기 다른 길이의 행으로 가사가 이루어짐

- 사냥 장면을 묘사:

대화, 외침 등이 나옴

- 두 상성부는 카논,

- 테노르는 기악적 반주 역할

- 후속 주제는 선행 주제로 부터

10 마디 간격을 두고 나옴

- 선행 주제는 가사의 마지막 두 번째 음절에서

긴 다음적 패시지를 부름

- 리토르넬로 역시 카논으로 되어 있음:

후속 주제는 선행 주제가 시작한 후

6마디 후에 나옴

The image displays a musical score for a piece titled 'Caccia' (Hunt), likely from Vivaldi's 'The Four Seasons'. The score is written for three parts: Cantus (Soprano), Cantus (Alto), and Tenor (Bass). The lyrics are in Italian, describing a hunt scene. The score is divided into four systems, each with three staves. The lyrics are: 'to - sto che l'al - ba del bel gior - n'ap - pa re, Di - sve - glia i cac - cia - to - ri, "Su, su, su, su, to - sto che l'al - ba ch'e gli e tem - po!" "Al - lec - ta gli can, te, del bel gior - n'ap pa - re, Di - sve - glia i cac - cia'.

● 발라타

- 마드리갈이나 카치아보다 다소 늦게 발달됨
- '춤추다'를 의미하는 ballare에서 유래된 명칭,
- 프랑스의 비를레와 같은 형식
- 트레첸토 다성 세속 노래 중 발라타만이

정형시 형식: A b b a A

- 두 부분의 음악으로 구성
 - 두 부분의 길이가 대략 같고, 같은 박자로 되어 있음
 - 선율적으로 카치아나 마드리갈보다 단순
 - 다음적 패시지도 더 적게 나타나고,

일반적으로 다음적 패시지의 길이도 짧음

- 14세기 후반에는 발라타가 가장 선호하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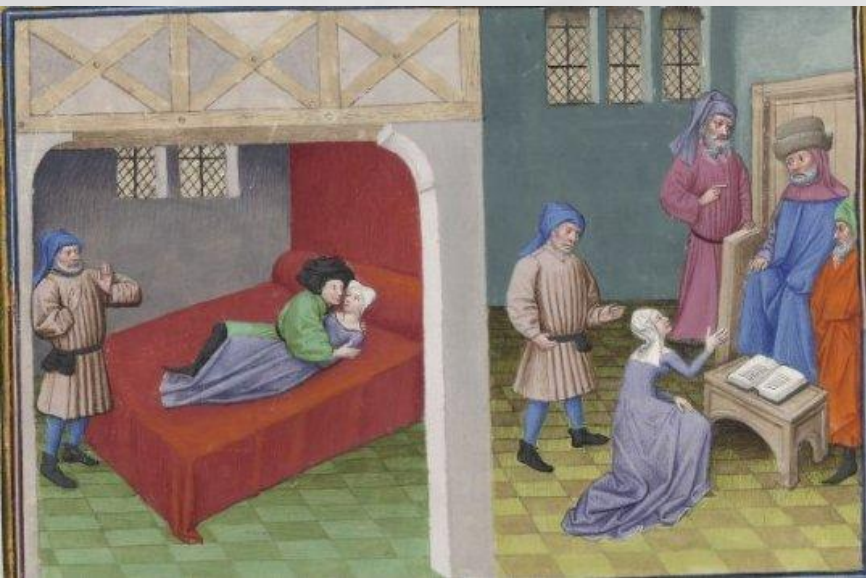
형식의 하나가 됨





보카치오의 <데카메론>

첫째 날의 여왕 팜피네아(Pampinea)는
중앙에 앉아있고,
나머지 여섯 여자들은
춤을 추고 있으며
세 명의 남자들이 구경하고 있다.



● 프란체스코 란디니 (1325경~97)

- 프랑스의 마쇼에 필적할 만한 시인, 음악가
- 오르간, 류트, 레코더 등 여러 악기를 다룸
- 성 안눈치아타의 교회와 피렌체의 대성당의 오르간 제작에 참여
- 오르간 제작자 및 조율사, 음악감독, 교회 오르간 주자, 가수, 작곡가로 활동
- 시레남이라는 현악기 발명
- 일생의 대부분을 피렌체에서 보냄
- 산타 트리니티의 수도원의 오르간 주자, 산 로렌초의 교회의 소성당 사제
- 뛰어난 지식인으로 중요한 철학적, 종교적, 정치적 논쟁에 참여
- 마쇼처럼 시인과 작곡가로서의 재능을 받음
 - 마쇼처럼 시인으로서의 명성을 얻지는 못함, 음악작품도 거의 다성적 세속노래에 한정됨



란디니

- 다산적 작곡가
 - 거의 다성적 세속 노래만 작곡
 - 154개 이상의 다성적 세속 노래를 남김
 - 트레첸토 세속적 레퍼토리 전체의 ¼ 가량을 차지
- 특히 발라타를 많이 작곡 (발라타는 14세기 후반에 성행)
- 란디니의 발라타는 새로운 방향을 주도:
 - 2 성부 발라타 89곡, 3 성부 발라타 42곡
 - (2성부와 3성부 구성 두 가지로 공존하는 발라타 9곡)
 - 대부분은 작곡 연대가 분명치 않음
 - 아마도 2성부는 초기 작품, 3성부는 후기 작품
- 음악이 함께 현존하는 트레첸토 발라타의 1/3에 해당하는 양



란디니, <사랑의 여신여>
(*Questa fanciull' amor*)

- 두 섹션은 같은 박자
- 모두 란디니 종지로 끝남
- 시행의 첫 음절과 마지막
강세 음절에 다음적
패시지가 나타남

1. S. Que - - - - sta fan - ciul - l'a - mor fal - la - mi pi -
4. Pe rò al ser - vo tuo, del sie pie - to -

Ct.

1. S. Que - - - - sta fan - ciul - l'a - mor fal - la - mi pi -
4. Pe - - - - - rò al ser - vo tuo, del sie pie - to -

8

- - - - - a Che m'a fe - ri - to'l oor nel -
- - - - - sa Mer - çè ti chie - gho al - la gram

- - - - - a Che m'a fe - ri - to el oor nel -
- - - - - sa Mer - çè ti chie - gho al - la gram

15

la tuo vi - - - - - a.
pe - na mi - - - - - a.

la tuo vi - - - - - a.
pe - na mi - - - - - a.

Fine

- 란디니는 발라타 이외에도 2성부 마드리갈 9곡과 3성부 마드리갈 3곡,
카치아 1곡, 프랑스 비를레 1곡 작곡,
모테트 4곡 작곡
- 이중 3곡의 한성부만 단편적으로 현존



- 란디니의 2성부 마드리갈은 완전히 이탈리아 스타일

가사는 모두 2개 또는 3개의 3행절 + 2행의 리토르넬로로 구성됨

음악적 형식도 a a b 또는 a a a b 로 규격화 됨

- 한 곡을 제외한 모든 마드리갈이 리토르넬로 부분은

앞부분과 다른 박자로 대조됨

- 다음적 패시지가 각 시행의 첫 음절과 마지막에서

두 번째 음절에 나타남

- 종지는 모두 동음에서 끝남

- 두 성부가 리듬적으로나 선율적으로 거의 동등

- 종종 성부 사이에 모방이나 동기 교환이 사용됨

- 3성부 마드리갈은 2성부 마드리갈과 달리 프랑스의 기법적 영향을 보여줌

예) 아이소리듬 기법

란디니의 묘비석

“피렌체의 맹인 오르간
주자인
마스터 프란체스코”



란디니의 마드리갈
<아주 감미롭게 소리내고
있지 않았는가>

첫 섹션의 테노르 성부:

콜르르 3번
탈레아 9번 등장

(3C = 9T)

콜르르는 21마디
탈레아는 7마디

→ 같은 선율 3번 반복

리토르넬로:

각 행에 같은 선율

각각 열린 종지와

닫힌 종지 사용

1.Si dol - ce non so - nō chol lir' Or - Phe

[A1] 1.Si dol - ce non so - nō chol lir' Or

o. Quan - - d'ā se trasse fer' u - ciel l'e bo - - -

phe - - - o [A2] Quan - - - d'ā se tras - se fer' u -

schi D'a mor can tan do d'in - fan - te di

bo - - - schi D'a - - - mor can tan - do d'in - fan - te

ciel - le bo - - - schi [A3] D'a - - - mor can tan - do

◆ 란디니 종지

- 7-6-8 도로 선율적 진행을 하는 종지
- 란디니가 창안한 것은 아님
- 아르스 노바 작곡가들도 널리 사용



<스쿠아르치알루피 코덱스>의 한 부분

란디니의 마드리갈 <Musica son>
(나는 음악이다)

란디니가 이동형 오르간을 연주하고 있는 모습



● 14세기 말의 프랑스와 이탈리아 음악

- 트레첸토 음악의 개화는 15세기 초에 스러져감
- 트레첸토 시기 동안 이탈리아 음악은 프랑스음악
으로부터 독립하여 독자적인 발전을 이룸
- 동시대 프랑스 음악: 짧은 선율적 모티브와
리듬적 복잡성에 치중
- 트레첸토 음악: 선율적 아름다움과 성악적 기교를
더 강조

이탈리아의 축제 의식,
14세기 초



